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17년 12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hanmail.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0
- 전화번호 : 02-880-7726

박 병 기(한국교원대학교, 본회 전임회장)

우리 사회의 현실

우리는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과 열망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삶이 녹록치 않을수록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희망적인 미래를 꿈꾼다. 그런 이유로 인류 역사에서는 유토피아나 내세(來世)를 제안하며 혁명을 시도하거나 구원을 약속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을 새로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칫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으로 흐르기 쉽고, 아니면 자신의 성장배경과 교육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선입견을 근거로 삼아 편향적인 관점만으로 시대와 사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럴수록 그 시대와 사회를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과 지성인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21세기 초반 한국사회를 기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이다. 시민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책임윤리의 주체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우리 시민사회는 60년대의 학생운동과 80년대의 광주민주화 운동, 최근의 촛불혁명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는 여전히 시민들 누구도 정당하고 분명한 사유 없이는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지배자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왕이나 왕의 딸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들은 21세기를 19세기의 신민의식(臣民意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무조적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차이에 따른 대우마저도 평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정상적인 자유와 평등관이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실천적 개선 노력이다. 자신은 예외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도덕교사가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중인격자이거나 아무런 도덕적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잔소리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를 위한 도덕교사의 역할

우리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자 결과물이다. 현재와 연결되지 않는 미래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일 뿐이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도덕교육 또한 당연히 현재의 우리 자신과 사회의 모습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과 내면적 성찰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다. 넘치는 먹을거리와 버려지는 엄청난 가전제품 등이 그 풍요의 상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사회는 급속한 개인화로 인한 고립의 일반화와 관계망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적 위기에 처한 사회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일상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정질서의 왜곡으로 인한 고통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줄 세우기 형태로 정착하면서, 대다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내면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도덕교사들은 우선 이러한 인정질서의 왜곡 현상을 직시하는 데서 미래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강압적인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도덕수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도덕수업은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기도 하다는 소식이 들려와 희망적이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정질서는 당연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질서인 분배질서와 연결되어 있다. 복지체제가 불완전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그 분배질서 왜곡의 과정이자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리 도덕교사에게는 이 분배질서에 관한 관심 또한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인정질서의 개선만을 시도할 경우, 자칫 현재의 왜곡된 분배질서에 눈감거나 오히려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교사에게 사회윤리의식이 요청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도덕교육에 대한 교과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가 지니게 된 강점 중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도덕교사와 학문공동체의 존재 자체다. 물질적 풍요와 성장 말고는 다른 가치들에 눈감은 채 폭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우리의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가치론적 분석과 실천적 대안 제시가 가능한 ‘윤리전문가로서의 도덕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도덕교육학자가 늘어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미래 또한 온기와 희망을 간직한 실질적인 유토피아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것이다.

II

학회 동정

1. 2017년도 동계학술대회 안내

오는 2017년 12월 15일 오후 1시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최로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사회와 도덕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국 사회와 정의, 한국 사회에서의 도덕교육에 대한 한국학적 접근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동준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축하해드리는 자리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등록 및 개회식 (1층소강당)	13:00~ 13:30	등록	신원동 (사무국장)
	13:30~ 13:40	개회식 및 인사말 홍용희(한국윤리학회 회장, 한국교통대) 박병춘(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회장, 전주교대)	이재호 (광주교대)
13:40~13:50		휴식 및 이동	
13:50~15:10		<제1부> 주제 발표 및 토론(I)	
제1부 1세션 (1층소강당)	13:50~ 14:30	발표주제: 촛불시위에 나타난 시민의식에 대한 연구 발 표 자: 변순용(서울교대) 토 론 자: 김국현(교원대), 박영진(한중연)	윤현진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14:30~ 15:10	발표주제: 롤즈의 자기패배 - 롤즈의 정의 이론에 대한 형식모형적 분석 발 표 자: 정훈(육군사관학교) 토 론 자: 조일수(충북대), 조주현(목포대)	
제1부 2세션 (2층세미나실)	13:50~ 14:30	발표주제: 전통도덕교육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소고 발 표 자: 김민재(안동대) 토 론 자: 홍석영(경상대), 강승희(동화고)	정순우 (한중연)
	14:30~ 15:10	발표주제: 도덕교육의 한국학적 접근을 위한 불교의 지혜 발 표 자: 박병기(한국교원대) 토 론 자: 황인표(춘천교대), 정상봉(건국대)	
15:10~15:20		휴식	
15:20~16:40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II)	
제2부 1세션 (1층소강당)	15:20~ 16:00	발표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정의로운 일은 가능한가? 발 표 자: 강철(연세대) 토 론 자: 변종현(제주대), 김철호(경인교대)	김태훈 (공주교대)
	16:00~ 16:40	발표주제: 포스트휴먼시대의 사회정의 - 레비나스의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성신형(숭실대) 토 론 자: 이범웅(공주교대), 이상호(경상대)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제2부 2세션 (2층세미나실)	15:20~ 16:00	발표주제: 지금 한국의 윤리교육계에는 ‘두견새 우는 밤의 깨달음’이 절실하다 발 표 자: 김기현(전남대) 토 론 자: 김문준(건양대), 노희정(광주교대)	이완범 (한중연)
	16:00~ 16:40	발표주제: Big Data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도덕·윤리 인식 특성 분 석 발 표 자: 김봉제(서울대) 토 론 자: 윤영돈(인천대), 김윤기(소사고)	
16:40~16:50		휴식 및 이동	
16:50~17:50		<제3부> 종합토론 및 기초 강연	
종합토론 (1층소강당)	16:50~ 17:20	종합토론 지정토론자 : 이경희(성신여대)	박찬구 (서울대)
기초강연 (1층소강당)	17:20~ 17:50	강연주제: 한국 도덕윤리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 강 연 자: 박동준(한중연)	김윤기 (소사고)
17:50~18:00		폐회식	김남준 (충북대)

2. 2017년도 연차학술대회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연차학술대회가 회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방명록에 성함을 남겨주신 선생님
을 중심으로 참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멀리서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미선(광주금구중)	김진희(군포의왕교육지원청)	양선모(청주서현중)	이철주(중원초)
강유경(대전가장초)	김태훈(공주교대)	양종원(전북대)	이철훈(상현중)
고대혁(경인교대)	김하연(서울대)	양해성(서울대)	이해운(솔비중)
고윤정(서울둔촌중)	김혜진(인천대)	오석종(반포고)	이현창(서울대)
곽수진(한국교원대)	김흥태(진건고)	오유진(서울대)	이혜진(망포중)
곽영근(경기예솔초)	노중섭(교원대)	오황진(한국교원대)	임상호(전북대)
권오영(한국교원대)	노희정(광주교대)	우선하(면목고)	장동익(공주교대)
권혜선(단대초)	류지한(한국교원대)	유제니(한국교원대)	장유정(인천남동고)
김가영(서울대)	박균열(경상대)	윤건선(인천시교육청)	전소연(전주교대)
김강초(한국교원대)	박동준(한중연)	윤건영(청주교대)	전제원(통일부)
김경선(서초중)	박병기(한국교원대)	윤영돈(인천대)	정결(한국교원대)
김남준(충북대)	박신연(서울치현초)	윤준식(서울대)	정나나(연목중)
김동창(제주대)	박언진(광명중)	이경무(춘천교대)	정대성(평가원)
김민겸(서울대)	박영주(울산무거초)	이기연(서울대)	정이슬(대방초)

김민재(안동대)	박영하(서울대)	이문재(한국교원대)	정중삼(남악중)
김민지(광주도수초)	박찬석(공주교대)	이민경(원주중)	정창우(서울대)
김병연(양재고)	박형빈(서울교대)	이범웅(공주교대)	주민정(구산중)
김봉제(서울대)	방민권(서울대)	이상호(경상대)	주혜련(하안북중)
김상돈(경성대)	배찬숙(석관중)	이슬기(서울대)	차미란(춘천교대)
김상범(평가원)	서강식(공주교대)	이영문(춘천교대)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김석향(이화여대)	서나연(신목중)	이윤주(송절중)	차승한(예당중)
김영은(평가원)	석자춘(서울대)	이인재(서울교대)	최광철(순천복성고)
김완수(부송초)	세키네히데유키(가천대)	이인태(도곡초)	최지현(양화중)
김용진(전일중)	소진형(신백현중)	이재호(광주교대)	추병완(춘천교대)
김은미(삼각산중)	손경원(서울대)	이정렬(경북대)	추정완(목포대)
김은정(고색고)	송선영(경상대)	이종욱(한국교원대)	허윤희(서울대)
김일수(한국교원대)	송재범(구현고)	이지영(서울시교육청)	홍은아(동수원초)
김정희(서울대)	신호재(평가원)	이지은(소의초)	황광원(가재울중)
김지수(서울대)	신희정(창원중앙고)	이진하(서울대)	황인표(춘천교대)

III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 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 납부 계좌 : 농협 302-1154-0960-31, 예금주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

납부 명단

- 특별회비 : 박병춘(100만)
- 연회비 : 강봉수(3만), 고미숙(3만), 김기현(3만), 김남준(10만), 김도건(10만), 김민수(3만), 김태훈(10만), 박상욱(3만), 박성춘(10만), 김영은(3만), 김흥태(3만), 박보람(3만), 박찬석(5만), 박형빈(3만), 방민권(3만), 박홍석(3만), 서강식(3만), 송선영(5만), 송재범(10만), 신원동(3만), 신중섭(3만), 양방주(3만), 양해성(3만), 오석종(10만), 윤준식(3만), 이강희(3만), 이정렬(3만), 이영문(10만), 이인태(3만), 이재호(5만), 이준경(3만), 이창희(3만), 이철주(5만), 이하원(3만), 이호중(6만), 장유정(3만), 장효민(3만), 정창우(10만), 조주현(10만), 지현아(3만), 추병완(3만), 추정완(3만)
- 평생회원 : 이인정, 이경희, 최형찬, 정탁준,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 기관회원 :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2. 투고 안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58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kosmee.jams.or.kr>)을 통해 1월 말까지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